

“원칙보다 실적”...한빛원전 사고 불렀다

5월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안전불감증·폐쇄적 조직문화 원인 원안위, 무자격자 제어봉 조작·절차 위반 등 인적 오류 최종 결론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불구 지역민 불안감 여전

지난 5월 발생한 무자격자 제어봉 조작에 따른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광주일보 2019년 5월 13일자 7면)는 안전 원칙 준수보다 가동 실적을 중시한 안전불감증과 폐쇄적인 원전 조직 문화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제어실 내 CC-TV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 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6개월간의 정기점검을 마친 한빛 1호기

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31분 갑자기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5%)를 넘어 18%까지 급증했다. 원전 직원들은 10시 33분 제어봉을 삽입하며, 10시41분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수원은 사고 11시간 30분만인 이날 밤 10시2분 수동정지했다.

조사에서 이번 사고는 당시 제어실 근무자들이 원자로 출력 계산을 잘못했고, 제어봉 조작은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채 무자격자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지만, 한수원은 원안위 측에 열출력 급증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수동정지도 늦어졌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를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안위 이번 사고 근본 원인으로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 의식이 결여된 조직 문화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를 지적했다.

원안위는 원전 주제어실(MCR)은 소수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운전원들은 한수원 관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또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내용 숙지와 이행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으며, 근무자들이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중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비기간 연장 등으로 발전량이 감소하면 발전소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한수원 평가 지표도 한몫을 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전 직원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안전보다는 공정 등을 우선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현장 대응 능력이 미흡해 초기 상황 파악이 지연된 점도 인정했다. 다만 원전 설비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한빛 1호기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국 원전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원자로 중’ 또는 ‘원자로 조종감’ 면허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면허를 지닌 감독·지시·감독 아래 근무하던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었다.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지도록 설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장의 승인이 있어야 했던 발전소 수동정지 권한은 발전팀장에게까지 부여되고, 한수원 발전소 평가 지표도 정기검사 일정 연장은 감점에서 제외되고 안정성 지표를 신설하는 등 개선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폭염 속 에어컨 고장 ‘짬뽕 KTX’

승객들 한시간 넘게 땀 ‘뻘뻘’

낮 기온이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한 KTX의 에어컨이 고장 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께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는 KTX 716호 열차의 5개 객차에서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열차의 에어컨은 전주역을 통과하던 4시 20분께부터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승객들은 1시간 넘게 짬뽕 객실에서 폭염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한 탑승객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

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은 점점 올라가 열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별장게 달아오를 정도였다”고 말했다.

더위를 참다 못한 일부 승객이 거세게 항의하자, 코레일 측은 사과 방송을 하고 승객들에게 생수와 물수건을 제공했다.

코레일은 또 규정에 따라 요금 50%를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이 열차는 이날 오후 6시 6분 종착역인 서울역에 도착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에어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지에 이상이 생겨 에어컨이 약하게 가동됐다”며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암 재발 증상 호소에도 추가검사 안한 의사 재판 받아야”

법원, 유족이 낸 재정신청 인용

환자의 암 재발 증상에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고법 형사3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숨진 A(여·2017년 사망 당시 70세)씨의 유족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하지 않음을 심사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암 재발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의사 B씨가 진단방사선과·핵의학과 판독결과와 소견을 확인하지 않고 추가 검사도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했다더라면 재발 적절한 치료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유방 초음파·유방 촬영술 검사에서 재발이 없다고 판독했다는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환자 A씨는 2010년 8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왼쪽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왼쪽 유방에

열이 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며 의사 B씨에게 1년 2개월간 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병원 진단방사선과와 핵의학과 판독결과에 따르면 2014년 8월 A씨 왼쪽 유방에 과거 관찰되지 않았던 작은 이상이 발견돼 MRI 등을 통한 확진 또는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그러나 의사 B씨는 확진·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독이 나온 2014년 8월과 A씨가 이상을 호소하며 예약 날짜가 아님에도 병원을 찾아온 같은 해 10월 두 차례 유방 초음파 결과 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5월에야 암 재발을 확인하고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암이 어깨 인파산까지 전이되는 등 치료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5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사 B씨가 MRI·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자, A씨 유족들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유족들은 의사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도 청구해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합원들에게 돈 건넌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전남의 한 조합장이 올해 3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직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넌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담양경찰청은 “지난 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조합장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조합원 3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건넌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밀물에 갯바위 고립 4명 구조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휴가객 4명이 해안가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20여 분만에 구조됐다

목포해경은 11일 오전 9시 30분께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앞 100m 갯바위에 고립된 윤모(53)씨 등 4명을 구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6시10분께 해수욕장 앞 갯바위에 조개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오전 9시 5분께 밀물로 물이 불어나 갯바위에 갇혔다.

윤씨 일행은 다행히 해수욕장 구조대에 발견돼 고립된 지 20여 분만인 9시 30분께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 이들은 충남 서천·서울·부산 등에서 휴가차 영광의 천적집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무더위엔 분수가 최고 무더위가 지속된 11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일곡제1근린공원에서 한 소녀가 바닥분수의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마스터즈수영대회 참가 70대 미국인 수구 경기 중 숨져

2019광주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 수구 경기에 참가한 70대 미국인이 숨졌다.

11일 광주광역시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망한 미국인 A(71)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미국과 호주의 수영 동호인 클럽 간

수구 경기 도중 갑자기 팔·다리가 풀린 채 움직이지 못하다가 물속에서 쓰러졌다.

경기본부 측은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A씨를 경기장 밖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다.

A씨는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심정지 상태를 보여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11일 새벽 5시 30분께 사망했다.

평소 협심증과 동맥경화 등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5년 전에도 이번 사고와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랫집 개가 짖는다며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경찰서행



○·광주의 한 연립주택에서 아랫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한 6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서행.

○·11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화정동의 한 연립주택 2층에 거주중인 A(60)씨는 이날 1층으로 이사를 온 B(30)씨의 애완견이 계속해서 짖어대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창문을 통해 B씨가 없는 집 안으로 침입하려했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날도 더운데 개가 너무 짖어 항의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으나, B씨의 집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B씨는 “개가 짖는다고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오려한 A씨의 행동에 공포감이 느껴진다”며 압박을 요구.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천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무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양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